

불자 세상보기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태고종 前 원장

현재 한국 불교계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행(修行)과 관련한 문제는 성불확신(確信)과 방편회통(會通)의 부재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가운데 수행을 가장 중요시 하는 종교가 불교인데 수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듣고 읽었던 중국과 한국의 큰스님들의 수행법에 관한 법문은 참 묘하다. 인류의 큰 스승이며 불교의 교주인 붓다의 수행법인 그침(samatha,止)과 살핍(vipassana,觀)을 여래선(如來禪)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사선(祖師禪)의 아래에 배치하고 혹은 외도선(外道禪)이라고까지 하였다. 활구(活口)를 참구하는 수행자의 입장을 강조하다보니 화두(話頭)를 부정

하고 고요한 가운데 현상(phenomena)과 법칙(law)을 살피는 초기적 방법의 묵조(默照)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물론, 당시 조동종(曹洞宗)의 지도자들과 관련한 것이기는 하다.

또, 얼마 전 있었던 어느 모임에서 '수행의 이력과 인격이 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불교 수행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 수행을 진행해 감에 따라 내 속에 있던 오염원(汚染源) 즉 나를 부처되게 하지 못하고 중생되게 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스승의 인가도 가능하지만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십 년 수행을 했는데도 인격의 향상을 경험하거나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불확신의 부재로 이어진다. 문제의 원인은 간화선 수행자나 지도자들의 전통인 입실면수(入室面授), 거량(擧量), 조참석취(朝參夕趣)등의 과정을 통해 행해졌던 수행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 및 인가(認可)하는 전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기불교의 사마타나 위빠사나 수행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

기 단체의 수행법을 제외한 곳의 수행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들은 붓다의 말씀을 담은 경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도론을 나름대로 활용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대승불교와 간화선(看話禪)은 불교가 아니라고 한다. 나(我)와 내 것(我所有)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시간 따라 변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정체성도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아(無我)사상이다. 제 뜻은 존재 없음(無所有 즉 無有)에서 출발한 비아(非我)가 맞다. 이 붓다의 가르침이 중국의 도교사상과 어울려 무아(無我)로 유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승에서 참나(眞我), 불성(佛性) 등을 강조한다고 해서 불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붓다의 가르침도 원음 그대로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된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할 때 다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

이러한 혼란과 대립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먼저 붓다의 가르침을 시대적으로 활용된 가르침들이 붓다의 길로 인도한다는 성불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고 선언하였으며, 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노력한 데 있다.

이는 달마 대사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 혜능 대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해골 물을 마시고도 깨달았다는 원효 대사나, 염불하면서도 마음만 챙기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한 태고 대사도 또한 같다. 지극한 사람이 곧 진리라고 읊은 만해 대사 등 모든 분반남자의 가르침에서 일상생활을 떠난 진리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남방의 초기불교에 입각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지도자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회통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특정한 전유물이 아니며,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알아서 성불을 위한 수행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회통하도록 평생 노력하며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단을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社說

새 종정 스님과 마음 닦는 수행

조계종에 새 정신적 지도자가 탄생했다. 12월 14일 조계종의 최고의결기 관인 원로회의는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를 추대했다. 새 종정 탄생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경합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단독 추천돼 곧바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진제 대종사는 추대 직후 "산승은 앞으로 우리 종단의 화합과 수행을 위해 원로스님들의 고견을 받을 것이다.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이자 조계종 본체인 간화선을 널리 진작하는데 매진하겠다"며 종정직을 수락했다.

진제 스님은 '남진제 북승당'으로 회자될 정도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1998년과 2000년 무차선대법회, 2009년 백고좌대법회, 2010년과 2011년 종교간 평화대화 행보에서 보이듯 조계종 수행 본체인 간

화선종의 진작을 위해 일생을 매진해 온 선승이다.

이분의 말 한마디는 지혜를 드러낸 금강저요, 대중에게는 삶의 지표와 같다. 새 종정 진제 대종사는 수락사에서 '마음 닦는 수행'을 강조했다. 간화선을 수행해 본래면목을 체득한다면 누구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진제 스님은 소감문 말미에서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요 진리의 진(眞)을 거두어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大智如愚人莫測 收來放去非拘)"라는 계승을 선포했다.

새 종정 진제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불자들을 비롯한 유정·무정물 모두가 지복(至福)의 평안을 얻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려면 마음 닦는 수행이 생활화돼야 한다.

이기영 박사의 보살운동

불교의 사회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속화만 경계한다면, 유마 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말은 불교가 왜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하는가를 반증하는 좋은 예이다.

불연 이기영은 원효학 전문가였다. 그가 입적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그의 가르침은 한국불교연구원과 그 산하단체를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설립자의 유교와 동시에 애국의 길을 걷는 것과는 대비된다. 불보살의 가피도 있었지만 불연이 보살운동을 제창했기 때문이리라.

참여불교운동가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로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아웅산 수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평화와 행복, 인권을 말했다. 이외

에도 사회봉사, 여성해방, 농촌빈곤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불자들이 많다.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맹목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종교 역시 아니다. 올바른 진리인 법을 알지 못하고 무명으로 인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윤회하는 고통을 수행을 통해 벗어나자는 거룩한 가르침이다. 그러려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만 한다. 불연 이기영은 기복불교가 판을 치던 근현대 한국사회에 원효라는 역사적 인물을 되살리면서 대승보살운동의 가치를 들었다.

불연 이기영 박사의 유지를 이어 보살사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한국불교를 증흥시키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졸풍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런 정부가 양극화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기구가 '동반성장위원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전임 정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기업과 각종 경제이권의 수혜자들로부터(특히 보수언론, 경제신문)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지원사격을 하는 등 묘양새를 갖추려 애를 써오면서 12월 13일로 출범 1년을 맞이했다.

1등을 맞이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초 극심한 논란을 야기했던 '이익공유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스스로 성대한 전지장을 준비했으나 예상대로 대기업 측 대표 9명이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전원 불참

승자독식의 세계, 이대로는 안된다

함으로써 찬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됐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기도 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정부는 감세정책을 필두로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정 정도 제한되었던 대기업 규제를 꾸준히 완화시켜왔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규모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과도하게 커진 대기업은 이제 정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공룡이 되어 버렸다. 하물며 정권 말기에는 오죽하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반드시 '이익공유제'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로 제기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실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 만신창이 된 정운찬 위원장의 논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가 관철되어야 할 중요 이유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인하(소위 CR)를 들면서, 과도한 납품가 격인하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인하는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인하와 고용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의 빈부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규모에서 세계 13위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규모는 세계 7위의 지위에 올랐으며, GDP 평균소득 2만 불이 넘는 사회이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처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일상화된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관철된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출주도적인 대기업은 오히려 대외 불사의 논리 속에 각종 특혜지원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위 '승자독식'(Winner-takes-it-all)의 논리에 기초하였다. 성과 및 업적지상주의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풍 따지는 물론, 운만 따르던 온갖 불법과 탈법도 능력의 잣대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리니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들어설 여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의 반대 논리

는 간단하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의지를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익공유제는 시장논리에 위배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대기업의 이익에 민감한 경제신문과 경제기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에 의해 유포된다.

그렇다면 소위 '숨은 감자'로 알려진 강한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보유한 독일, 이탈리아 등의 대기업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조금 장사가 된다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침투하지 않으며, 협력관계도 수직적 강압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승자독식은 한 순간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사회구조의 기반을 침식하는 순간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봐야한다.

15일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45.3%에 달한다고 한다. 확실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승자들이 말하는 논리 즉, 비용의 문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물담당실시간 뉴스연물뉴스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	소평물 연물상담국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지사안내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신선한발상, 새로운 접근, 알기 쉬운 해설!
문자 해석을 넘어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현실적인 해설!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11월 19일(토) 10:00~18:0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초기불교와 인도·티베트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의학 등 각 분야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찰한 책.

정준영·안성두·황규연·박진국·우희종 지 | 348쪽 | 18,000원

받은 사람들 송서

01 죽음 삶의 동력인가 피로움의 부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20,000원	02 나, 나 바람 것인가 꽃을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23,000원	03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20,000원	04 몸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 424쪽 20,000원	05 행복 행복, 재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416쪽 20,000원
--	--	---	--	---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